

4월18일(월)/갈 4:1~7

제목: 타종교는 어린 아이이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재산의 주인이지만 그 아버지가 정해 준 때까지 보호와 관리를 받는다(1~2절). 갈라디아 교인들도 어렸을 때에는 유치한 유대교의 율법에 얽매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사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구원하셨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셨다(3~5절).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였다(6절).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7절). 삶이 아직 율법에 예속된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켰다. 이를 진심으로 받아드리고 믿는 자는 비로소 어른이 된다. 하나님은 어른에게 유산을 상속하신다. 행위나 수양이나 고행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려는 모든 타종교는 어린 아이와 같다. 아버지는 어린 아이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 어른이 되어서 자기 지각이 생길 때 상속한다. 크리스찬은 성인이다.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도 자녀의 혜택을 누리고 저 땅에서도 상속의 기쁨과 영예를 누린다.

4월19일(화)/갈 4:8~11

제목: 신천지와 안상홍은 거짓이다.

예전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종노릇 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달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는 유치한 교훈에 빠져있다(9~10절). 여기서 ‘달’은 안식일을 가리키고, ‘달’은 특별한 행사가 있는 달을 가리키고, ‘절기’는 율법에서 준수하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를 가리키고, ‘해’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가리킨다. 그들은 예수를 믿고 새 약속과 은혜의 빛 속에 거하는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으로 회귀하려는 습성을 떨치지 못했다. 바울은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그 수고가 어리석고 유치한 습성에 빠진 그들에게 헛된 것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하였다(11절). 요즈음 신천지나 안상홍같은 이단집단은 구약의 절기 즉, 유월절을 준수할 것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들은 유월절 준수를 구원과 연결시키기까지 한다. 이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9절)이다. 또 그들의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행위이다(11절). 신천지와 안상홍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집단인지 본분이 잘 말해준다.

4월20일(수)/갈 4:12~20

제목: 열정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한 때 병들었을 때에 그를 외면하지 않고 천사처럼, 예수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눈이라도 빼 줄 정도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13~15절). 바울은 그러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자기를 원수처럼 대해도 되느냐고 물었다(16절).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이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열정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선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를 때어 놓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들을 추종하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17절). 그는 율법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 속에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해산하는 산모의 진통을 겪고 있다(19절). 그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부드러운 어조를 말할 수 없다며 심정을 토로 하였다(20절). 거짓 사도들은 열정적이었다. 그러나 그 열정에는 진리와 복음이 없었다. 오늘날에도 열정적인 크리스찬이 있다. 그러나 열정이 무엇을 향한 열정인가를 살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지 않는 열정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열정일 가능성이 많다.

4월21일(목)/갈 4:21~5:1

제목: 아브라함의 두 아들

아브라함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여종의 몸에서 났고 하나는 본부인의 몸에서 났다(22절).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인간적인 육정의 소생이었고, 종이 될 아들이었고 본부인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다(23절). 종이 될 자식을 낳은 사람은 하갈이며 사라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다(26~27절). 갈라디아 교인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다(28절). 아브라함 당시 육정으로 난 종의 자식 이스마엘이 성령으로 난 약속의 자식 이삭을 박해하였는데 지금이 그와 같은 상황이다(29절). 여기서 종의 자식은 율법을, 약속의 자식은 복음을 가리킨다. 율법이 복음을 박해하고 있는 상황을 그렇게 묘사했다. 바울은 구약성서를 인용하여, “여종과 그의 자식을 쫓아내어라. 종의 자식은 결코 본 자식과 같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30절). 즉 율법을 쫓아버리라는 것이다. 복음으로 태어난 갈라디아 교인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기 때문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한다(31절). 율법을 자기 생의 중심으로 삼는 자는 노예처럼 살게 된다.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할까? 그는 항상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복음 안에, 은혜 안에 사는 자는 자유롭고, 여유가 있다.

4월22일(금)/갈 5:2~12

제목: 고속도로를 타면 돌아올 수 없다.

바울은 만일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즉, 율법의 일부를 용납하면 나중에 율법 전체를 용납하게 된다고 하였다(3절). 율법으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그의 관계가 끊어졌고 은총에서 벗어난 사람이다(4절). 할례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6절). 신앙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9절). 누룩이 일단 들어가면 부풀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누룩같은 율법의 유혹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10절). 그리고 거친 말투로 이 부분을 끝내고 있다. 그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지체를 아예 잘라버리라고 하였다(12절). 그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허용한다면 할례를 명시한 율법 전체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조금이라도 문을 열면 나중에는 전체를 다 열어야 한. 10%만 허용해도 나중에는 100% 수용해야 한다. 죄의 고속도로를 일단 올라타면 종착역까지 간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쪽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